

# 부산시, 2차 도시철도망 확정... 부산항선 등 145.6km 연장

10개 노선 선정·4개 노선 후보 북항 재개발 등 도심 변화 대응 기존 부산 1·2호선 급행화 추진

부산시는 향후 10년간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과 고시를 마쳤다.

이번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사전검토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민·전문가 공청회, 전문가 및 관계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위원회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국가교통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계획에는 제1차 구축계획 이후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북항재개발, 에코델타시티 및 센텀2지구 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과 부산교통권역의 교통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 도시공간 구조에 대응하는 철도망을 제시했다.

경제성(B/C) 0.7 이상 또는 종합평가(AHP) 0.5 이상 기준을 충족한 대상 노선은 모두 10개다. 총연장은 145.66km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 노선(단위 :km, 억원)>

노선명	기종점	연장	사업비
부산형 급행철도	가덕도신공항~명지~하단~부산역(북항)~부전~센텀~오시리아	54.04	47,692
부산항선	태종대~중앙역(1호선)~북항~범일역(1호선)~문현역(2호선)~우암~감만~경성대~부경대역(2호선)	24.21	7,240
정관선	기장군 월평리~정관신도시~좌천삼거리~좌천역(동해선)	12.8	4,330
송도선	자갈치역(1호선)~송도해수욕장~고신대~감천사거리~장림역(1호선)	7.05	4,024
강서선	명지오션시티~에코델타시티~대저역(3호선)	21.1	7,252
기장선	안평역(4호선)~기장초~기장중~기장역(동해선)~일광신도시	7.1	4,697
연산 제2센텀선	연산역(1,3호선)~토곡사거리~부산원동역(동해선)~센텀2지구 산업단지~석대역(4호선)	8.03	7,148
오시리아선	장산역(2호선)~송정역~동부산관광단지(오시리아)	4.13	4,825
부산 2호선 급행화	양산역~서면역~장산역 (급행역 11개역, 부분선 설치 7개소)	2.9	4,991
부산 1호선 급행화	노포역~서면역~대대포해수욕장역 (급행역 9개역, 부분선 설치 8개소)	4.3	6,659

다.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향후 도시개발과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 필요성이 있는 4개 노선 33.82km는 후보 노선으로 포함했다.

대상 노선에는 가덕도신공항과 명지·부산역·센텀·오시리아를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를 비롯해 부산항선과 정관선, 송도선, 강서선, 기장선, 연산제2센텀선, 오시리아선이 담겼다. 기존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산2호선 급행화와 부산1호선 급행화도 함께 반영

됐다. 후보 노선은 오륙도선과 주례~부산역 연결지선, 동부산선, 덕천~초읍~서면선 등 4개다.

부산시는 구축계획 승인에 맞춰 노선별 경제성과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부산항선은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항선을 중심으로 문현~시민공원과 대연~오륙도를 연결하는 지선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원도심과 해안권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시철도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 지역 이모저모

### 부여군 내달 3일 '서동연꽃축제' 개최

부여군 대표 여름 축제인 제24회 부여서동연꽃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서동공원(공남지) 일원서 펼쳐진다.

'사랑의 시작, 연꽃향기에 물들다'를 주제로, 공남지의 아름다운 연꽃과 서동·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참여형 프로그램을 집중 선보인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남지의 여름밤을 배경으로 천년 전 서동과 선화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와 리듬으로 재해석한 이머시브 주제공연인 '2026 공남지 판타지'를 선보인다. 축제의 주제인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야기와 음악, 현장 분위기에 함께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여(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화순군 '직장인 마음충전소' 사업장 모집

화순군은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강영)에서 직장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프로그램 '직장인 마음충전소'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총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모집은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차 모집은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 찾아가는 마음카페(음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화순(호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광양시, 내달 '걷기 챌린지' 운영

광양시는 내달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월(7)전달기 더위도 걷는다! 7월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1일 최대 8천 걸음까지 인정되며, 기간 중 누적 20만 보를 달성한 참여자는 광양사랑상품권 5000원권 지급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 시는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70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한 뒤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챌린지 탭에서 해당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광양(호남)=양수영 기자

### 창녕군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하세요'

경남 창녕군은 군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온라인(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 경북도, 미래 산림자원 확보 팔 걷어

### 산불피해 '자연복원·인공조림' 대응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 다질 것'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도가 피해 산림의 대부분을 자연복원 방식으로 회복시키되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계획적인 조림을 병행하는 복원 전략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현장조사와 입지 분석을 토대로 피해지별 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 회복과 주민 안전, 미래 산림자원 확보를 함께 고려한 복구 체계를 구축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의 민유림 면적은 8만9804ha다. 이 가운데 7만5117ha인 83.7%는 자연복원 방식으로 관리한다. 조림복원 대상은 1만4488ha로 전체의 16.1%를 차지하며 생태복원은 199ha 규모로 추진한다.

자연복원 대상지라도 복원 여건에 따라 인공조림을 함께 실시한다. 종자 공급원이 부족하거나 토양 유실이 심한 지



안동산불 피해지 복구 현장

역과 산사태 위험이 큰 급경사지, 생활권 인접 산림 등은 기능별 맞춤형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자연복원만을 고집하면 재해 취약 상태가 장기화되고 산림의 전반적인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와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제적·계획적으로 조림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목재 생산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거창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해드려요"

### 내달 16일까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남 거창군은 올해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

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년~2007년생)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자격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군은 올해 총 3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12개월간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된다.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 경남도, 농어업인 경영안정 200억 투입

### 하반기 융자 지원 신청 접수

경남도는 경영비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200억 원이다. 경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 1%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며, 특히 청년농업인에게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0.8% 금리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농어업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융자 신청 시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했다. 상반기

에는 약 500명에게 1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융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 희망자는 7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시군 심사를 거쳐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 경남도가 8월 초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경북도, 유기농산업 지원단지 조성 속도

### 울진·의성, 친환경 시설 구축 순항

경북도가 울진군과 의성군에 추진하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체험·소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울진에는 지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180억원(국비 90억원 포함)을 들여 근남면 수산리 왕피천 공원 일원에 5만 8918㎡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유기농 복합문화센터, 청년 유기농 사관학교, 소규모 감치공장, 유기농 실외체험장, 미래농업 체험장 등이 들어선다.

지금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을 마치고 현재 원가심사와 일감

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8월에 울진군이 경북도에 사업시행 승인을 요청하면 10월 공사입찰을 거쳐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의성에서는 신공항 조성사업과 연계해 지난 2023년 경북도와 의성군이 사업을 시작했다.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일원 부지 7만 5629㎡에 건축면적 3199.7㎡ 규모로 사업비 163억원(도비 70억, 군비 93억원)을 들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곳에는 친환경 유기농 통합유통물류기공센터, 친환경 유기농장이 들어선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이곳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출하처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